

고등어 한마리에 5000원 ‘훌쩍’… “장보기가 겁나요”

광주지역 대형마트 가보니

쌀 20kg 6만원·닭 한 마리 1만원
식재료·공산품 등 가격 고공행진
서민 실생활 체감경기는 더 악화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책 마련을”

“물가가 너무 오른 게 체감돼서 장 볼 때 마다 겁이 나요. 카드값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지난 23일 오후 광주광역시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효은(49)씨는 식료품 매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장바구니 속 물건을 꺼내고 담기를 반복했다.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골랐지만, 계산대에 서기 전에는 ‘포기할 것’부터 따져봐야 하는 게 요즘 장보기의 현실이다.

박씨는 “가족들한테는 비싸도 좋은 것만 먹고 싶은 마음이지만, 카트에 하나씩 담다 보면 10만원~20만원은 금방 넘는다”며 “월급은 조금씩 오르는데, 물가는 1년 새 너무 많이 올라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깊어지면서 박씨처럼 장보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날 해당 마트에서 판매 중인 주요 식자재 가격은 정상이 기준 계란 특란 30구 한 판이 7980원,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5만9900원, 국산 간 고등어 2마리(500g) 9980원, 닭 한 마리(1kg) 9980원, 바나나 한 손 5980원, 우유 한 팩 약 3000원 선 등으로 형성됐다. 라면볶음(4~5봉)은 제품별로 4000원대부터 시작해 최고 6000원대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품목도 있었지만, ‘식탁 단골’로 불리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매대에 진열된 제품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는 일부 식재료는 눈에 띄게 오른 모습이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 정보에 따르면, 23일 기준 계란 특란 30구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1.43% 올랐고, 쌀(20kg)은 9.83%, 감자는 31.89%, 고등어는 40.44% 각각 상승했다.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치 장을 보면 10만원대는 기본이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는 단지 먹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의류와 주거비 등 생활 전반으로 퍼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는 OECD 38개국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

이며,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1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식료품 가격지수는 156, 의류는 161, 주거비는 123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는 셈이다.

채운 것보다 빈 곳이 많은 장바구니를 든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소비자들의 얼굴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마트 측도 행사와 기획전으로 생필품 등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채은봉(53)씨는 “할인 행사에도 예전처럼 여유 있게 장을 보기가 힘들다. 간식류와 신선식품 등 식재료의 가격과 함께 공산품도 많이 올랐다”며 “생활비는 한정

돼 있다 보니 꼭 필요한 것만 간신히 고르게 된다”고 털어놨다.

경제지표도 이 같은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준 연도를 2020년(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6.2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요금, 농축수산물 등 전 부문이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물가 상승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어획량 감소, 유통 구조 변화, 전염병 발생과 같은 국내 요인에 더해 수출입, 환율 등 외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과 더불어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0.4%, 0.7% 급등하기도 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같은 외부 충격이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탓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폭은 이보다 더 가파르다. 자주 사는 물건일수록 가격 인상이 고스란히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119.20을 기록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마트 한쪽에서는 가격표를 번갈아 보며 한숨짓고,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진열대로 물건을 돌려놓는 손길이 이어졌다. ‘마감 세일’을 알리는 점원의 목소리가 매장 곳곳을 메우자, 그제야 망설임 끝에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이들도 보였다. 텅 빈 카트가 매장 사이사이를 오가는 풍경은 고물가 시대 살림현장의 씁쓸한 단면을 대변했다.

김모(27)씨는 “취업 후 자취를 시작하면서 매달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숫자로 보는 물가보다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지갑은 더 빠르게 비어가는 현실 속에, 서민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주희(42)씨는 “요즘은 당장 급한 것만 사며 버티고 있다”며 “장바구니가 곧 민생의 척도다. 새 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전남온라인학교, 본교 온라인 강의실서 첫 수업 시작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10과목 15강좌…“교육격차 해소”

전라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개교한 전남온라인학교가 지난 20일부터 본교 내 온라인 강의실에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온라인학교는 지난 3월1일 개교 이후 목포여자중학교 4층 임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본교 일부 공간의 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일부터 전용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온라인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한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학생들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전남온라인학교에 상주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미적분, 경제, 물리학 I, 일본어 I 등 10과목 15강좌가 개설돼 수업이 진행 중이며, 도내 10개 고등학교 12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2학기에는 학생 수요와 과목 다양성을 반영해 강좌 수를 더욱 확대한다. 인공지능 수학, 주제 탐구(R&E) 기초, 비판적 질문과 창의적 해결 등 15과목 21강좌를 개설, 도내 18개 고등학교에서 178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전남온라인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프로그래밍 등 정보 관련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과목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

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간 연계 체제를 촘촘히 구축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은희 전남온라인학교장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온라인수업을 통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도 “전남온라인학교를 고교학점제 운영의 중심이자 전남 미래 교육의 거점 학교로 육성해, 공교육을 혁신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GIST·전남대, 의과학자 양성 시동

4년간 34억원 공동 프로그램
의·과학 융합형 인재 60명 양성
AI·우주의학 등 6대 분야 집중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차세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G-STAR’를 본격 추진하며, 과기정통부 사업에 선정돼 4년간 34억원을 투입한다.

GIST와 전남대 의대는 공동 기획한 ‘G-STAR(Global Scientist Training for Advanced Research) 프로그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GIST 교수와 의대 정재용 전남대 교수가 각각 주관·공동연구기관 책임자로 참여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0명 이상의 의과학자 및 바이오의료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G-STAR’는 기초과학과 임상 의학을 넘나드는 교육·연구 통합 플랫폼으로, 국내 부족한 연구 중심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약 3300명의 의학계 졸업생 중 기초의학 연구 분야 진출자가 1%도 안 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다.

양 기관은 의료 현장의 통찰을 과학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되돌리는 ‘양방향 가교’ 역할을 수행할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GIST는 AI·의생명공학·우주의학 등 실증 기반 교육을, 전남대 의대는 면역치료와 정밀의료 중심의 임상 기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의과학자-의공학자간 융합교육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미니학위 과정 △해외연수 △6대 특화 분야(R&D) 수행 △실�험실 인턴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GIST·전남대가 공동 운영하는 미니학위 과정은 핵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며, 이수 내역은 공식 증명서에 반영된다.

두 기관은 전남 사무국도 설치해 학사·연구 행정을 통합하고, 참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지속적 성장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관 GIST 교수는 “G-STAR는 의학과 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교육 모델로, 미래 의료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용 전남대 교수는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숙원이 현실화됐으며,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학 연구를 견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GIST와 전남대는 2010년부터 공동 연구·교육 협력을 이어왔으며, G-STAR를 계기로 AI 진단, 면역치료, 우주의학 등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사노조 “노동자 장관 탄생, 더는 특별할 일 아니어야”

환경의 뜻과 함께 긍정적 평가
노동부 제자리 찾는 첫 걸음
상식 회복 위한 변화의 출발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노동의 가치와 상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하고 억압해온 가운데, 노동자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노동 정책을 맡게 된 것은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영훈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이 특별할 이유는 없다”며 “이런 인사가

반복되고 일상이 될 때 비로소 진짜 상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배제해온 정부와 사회 전반의 낡은 인식에 균열을 내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김 내정자의 취임이 정책과 공무원 조직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노병하 기자